2017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 수시모집

논술(AAT) 인문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09:30 ~ 11:10 (100분)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수 험 번 호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 및 답안지에 **지원학과(부, 전공),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2.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답안지는 2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등) 중 1가지를 계속 사용할 것**
5. 답안을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답안지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7.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사회에서는 '위험'과 '안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심화된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학, 정치, 언론, 경제, 법 심지어 군대조차도 위험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위험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불확실한 위험의 영향에 대해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인화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개인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 확장과 자기실현 가능성의 확장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확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나)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위험에 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디어는 위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정확히 알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가 언제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매체도 위험에 관한 판단을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문 의견을 알리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 질병이나 질환은 당사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은 개인이 바람직한 행동과 생활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은 일종의 도덕적 성취로 해석되고, 질병은 도덕적 실패로 간주된다. 대중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각종 건강 프로그램은 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그려낸다. 건강한 삶은 각자가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순전히 개인적인 목표로 설정된다.

1-1. 위험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100자 이내) (20점)

1-2. <보기>를 읽고, '비만'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다)를 참고해서 제시하고, 그런 인식이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30자 이내) (40점)

<보기>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기존에 '성인병' 또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불려온 것들을 '생활 습관병'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용어의 채택은 과식,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사람들의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개인의 소유권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정당화함으로써 공동선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개인이 공동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항상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행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위는 그가 처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절대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고 채택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고려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나)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은 각자가 자신의 심신에 대해 지닌 절대적 '자기 소유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의 몸과 마음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 역시 나의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나의 심신상의 자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얻은 내 소득과 재산 역시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심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러한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여 타인의 생계보장과 의료지원, 장학금 보조 등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지출한다면, 이는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2-1. (가)와 (나)는 소유권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①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시오. (50자 이내) (20점)

②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시오. (50자 이내) (20점)

2-2. <주장>에 따라 윗글의 ㉠을 반박하시오. (130자 이내) (30점)

<주장>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에 국한된다. 각자의 자질과 재능의 상당 부분은 선천적으로 우연히 갖고 태어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협력의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조리 있고 간결하게 주고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협력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네 가지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양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정보를 제공하라.
- 질의 격률: 증거가 있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라.
- 관련성의 격률: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하라.
- 태도의 격률: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려면 '협력의 원리'뿐만 아니라 '공손성의 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공손하지 못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반대로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공손성의 원리'에 부합되는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들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의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

- 요령의 격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라.
- 관용의 격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되는 표현은 늘려라.
- 칭찬의 격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줄이고 칭찬은 늘려라.
- 겸양의 격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비방은 늘려라.
- 동의의 격률: 상대와의 의견 차이는 줄이고 의견 일치는 늘려라.

3-1. 다음 대화에서 형규의 응답이 **위반**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의 격률 두 가지를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 수진: 형규야, 요즘엔 무슨 음악 들어?
> 형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열심히 듣고 있어. 그 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에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거 말이야. 음악이 깔리면서 눈 내리던 장면 진짜 멋있었잖아. 주인공 표정도 압권이었고. 역시 거장이 만든 영화는 달라. 올 봄에 나올 그 감독의 새 영화에도 기대가 커.

① _____

② _____

3-2.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과 수진이 **준수**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의 격률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시오. (①, ② 각 5점)

> 선생님: 수진이가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엄청 늘었구나.
> 수진: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잘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① 선생님: _____

② 수진: _____

3-3. '공손성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를 **위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잘 차린 식사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한 집주인이 **"차린 건 없지만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을 위반하였다. **위반**된 '협력의 원리'의 한 가지 격률과 **준수**된 '공손성의 원리'의 두 가지 격률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오. (각 이유 50자 이내) (각 격률 5점, 각 이유 10점)

위반한 격률: _____
이유:
_____
_____

준수한 격률1: _____
이유:
_____
_____

준수한 격률2: _____
이유:
_____
_____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1]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2] 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3]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 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웠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 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최인훈, 『광장』

1) 콜호스: 옛 소련의 집단농장
2) 사북: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3) 마스트: 배의 갑판 중심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

문학 작품을 섬세하게 읽기 위해서는 작품을 다양한 관점과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 비평 자료들은 『광장』의 결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읽게 되면 이명준의 죽음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비평 자료 1>

신화 비평은 작품에 나타난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에 관심을 가진다. 이명준이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행위에는 신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신화적 관점에서 보면 바닷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또 은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생명의 어머니'로 그려져 있으며 종종 바다의 이미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광장』의 결말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신화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삶과 죽음, 창조와 파멸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한데 뒤얽혀 있다.

<비평 자료 2>

심리주의 비평은 작중 인물들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을 기울인다. 『광장』은 이명준의 자살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유토피아의 꿈을 상실한 이명준은 부채의 사북 자리,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문장의 호흡을 가파르게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를 한 문장 안에 넣어 표현함으로써, 작품은 자살 직전 이명준이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4-1. <비평 자료 1>의 관점에서 ㉠에 담긴 상징과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4-2. <비평 자료 2>의 관점에서 ㉡에 표현된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이명준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180자 이내) (40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당사자의 '숨겨진 행동'이 다른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입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격적인 운전은 사고가 날 확률을 높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공격적인 운전인지 다른 원인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적인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대개의 경우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한다. 만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운전자 자신이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는 더 방어적으로 운전하겠지만,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면 운전자가 방어적으로 운전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된다. 종업원의 태만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좋은 예이다. ㉡종업원이 태만하더라도 회사가 알아채기 어렵다면 자신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이윤 감소 대부분을 종업원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적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정보를 가진 쪽(즉, 숨겨진 행동을 하는 쪽)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주인이고 정보를 가진 쪽이 대리인이다. 다시 말해 ⓐ주인이 대리인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설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설계한다면 보험 가입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5-1. ㉠에 대한 ⓐ의 사례가 ㉢인 것과 같이, ㉡에 대한 ⓐ의 사례가 <보기 1>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적으시오. [(가), (나) 각 30자 이내, 각 20점]

<보기 1>

1914년에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 종업원의 일일 임금을 $2에서 $5로 인상하였다. 다른 회사들의 일일 임금이 여전히 $2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였던 헨리 포드가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훗날 포드 자신은 이 조치가 "자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임금 인상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것인데, 태만한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을 크게 하는 효과도 그 중 하나였다.

	자동차 보험 사례	포드 자동차 회사 사례
숨겨진 행동	운전자의 공격적 운전	종업원의 태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용	공격적 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 증가	(가)
계약 설계로 제공된 유인 금액	공격적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잃게 되는 보험료 할증액	(나)

(가) _____

(나) _____

5-2. <보기 2>는 ㉡에 대한 ⓐ의 사례인 '성과급'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자료]의 ① ~ ④ 가운데 [문제점] (1)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시오. (20점)

<보기 2>

[성과급]

성과를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리인의 노력은 '숨겨진 행동'이어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성과에 기초하여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한 고용 계약.

[자료]

회사의 주가를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지급했더니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되었다.

①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②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③ 회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회계 정보가 바깥에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었다.

④ 세계 경제의 변화로 주가가 상승한 산업의 기업들과 주가가 하락한 산업의 기업들 사이에 최고경영자들의 연봉 격차가 커졌다.

[문제점]

벵트 홈스트롬은 다음과 같은 성과급의 문제점을 밝힌 공헌을 인정 받아 201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 대리인에게 다양한 노력이 요구될 경우에는 성과급 방식의 계약이 대리인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그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가 운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대리인에게 전가된다.

(1) _____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칸트에 따르면 계몽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이성을 사용하고 판단하려는 결단과 용기를 내지 않는 데 있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다.

이성의 사용은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대중 앞에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을 넘어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명령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의 장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상관의 명령이 적절한지 유용한지에 관해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나 군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는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고 대중 앞에서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예루살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평범함**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했다. 이 점은 그의 언어 사용에서 드러난다. 그는 일상어로 대화하는 데 아주 서툴렀고 관청에서 통용되는 표현과 어투에 익숙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없었기에 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몰랐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 법정에서 그는 전쟁 중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고,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이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1. 아이히만의 '평범함'은 (가)에서 말하는 '미성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그의 세 가지 무능력함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①, ②, ③ 각 25자 이내, 각 10점)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6-2. (나)의 ㉢을 (가)를 참고하여 반박하시오. 단, (가)의 ㉠과 ㉡을 사용하시오. (100자 이내) (35점)

_____

_____

_____